

정일문의 우문현답 “지구 100바퀴 돌고 1조 순익 낸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한국투자증권 사장 간담회

“영업강화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쉬지않고 임직원과 현장 찾을 것 카카오뱅크와 계좌개설도 진행”



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신임 사장이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3년 내 순이익 1조 원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경영목표를 밝혔다.

12년 만에 교체된 대표인 정 사장은 한국투자증권 최초 공채출신이란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졌다. 정 사장은 “영업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퇴임 이후, 지구 100바퀴를 돈 선배로...’

정 사장은 1988년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동원증권 공채로 시작해 지금까지 투자은행(IB) 부문에서 27년, 리테일 부문에서 3년간 일해왔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영업 마인드가 확고하다.

정 사장은 “입사 이후 지금까지 이동거리를 계산해보니 차로 200만km, 비행 누적 거리가 100만km가 되더라”면서 “사장이 된 지금도 쉬지 않고 임직원과 현장을 찾아가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100만km를 더 달려서 한국투자증권 재직 기간에 총 400만km를 채우는 게 목표”라며 “퇴임 이후 지구 100바퀴만큼의 거리를 달린, 영업을 열심히 한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울무차가 나왔다’

한국증권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영전략은 ‘계열사 및 본부간 시너지 일상화’다. 이를 위해 업무 개선 조직을 경영기획총괄 소속인 ‘업무혁신추진부’로 확대·개편해 현장의 소리가 최단 시간 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정 사장은 “수 십 년간 영업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울무차가 나오는 것 처럼 현장에서 원하는 답이 결과물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 개선 부서를 경영기획 총괄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부간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며 “본부 평가에 IB-자산관리(WM) 상품, IB-종합금융 간 연계 등 유관 본부와 부서 간 협업 시너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너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전략’

역시 강조했다. 그는 “지주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해 우리의 원장, 고객 데이터 베이스 등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투증권이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 강화에 대해 “1, 2분기 좀 카카오뱅크와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면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네트워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 ‘IB 동료들이 전면에 나섰다’

정 사장은 지난해 신임 대표로 내정되면서 국내 최초 IB 전문가 출신 사장인 정영태 NH투자증권 사장과 나란히 언급됐다. 증권사의 IB 강화 바람이 거세다는 방증이다.

정 사장은 “정영태 NH투자증권 사장 이후 (IB출신 CEO는) 내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IB 본부장 시절 경쟁했던 분들이 경영 전면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증권사 IB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증권만의 전략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더 멀리 보

고,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정 사장은 “처음 IB 본부장이 됐을 때 한국증권은 국내 30대 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30대 그룹 중 거래하지 않는 그룹이 하나도 없다”면서 “거래 관계는 가끔은 손해 보고, 이익을 내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이 국내 사상 최대 공모 규모로 기록된 삼성생명의 기업공개(IPO)에 대표주관회사로 거래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략 덕분이다.

◆ ‘등 급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

정 사장은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까지 오른 소화에 대해 “등 급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 것”이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한국증권은 학벌, 지역, 인맥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 성과보상이 확실한 조직”이라면서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닌, 숫자가 만들어지는 정성적 부문까지 들여다보며 충분히 보상해 주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행 어려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해 “최대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키움증권 해외주식 리워드 이벤트

키움증권은 내달 22일까지 거래금액 별로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하는 ‘2019 해외주식 리워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거래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최대 30만원을 증정한다. 해외주식 누적거래금액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증정하며, 누적거래금액 10억원 이상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증정한다.

/손업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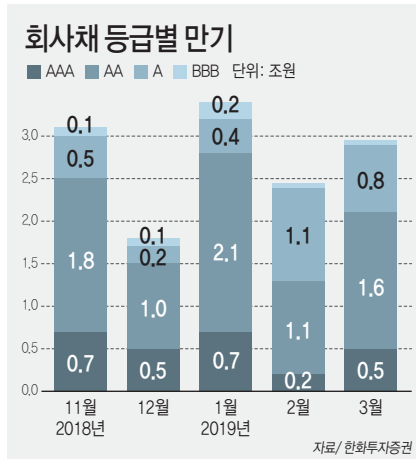
삼성증권 금융상품 매매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해외주식을 온라인으로 매수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22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금융상품, 해외주식, 하면 돼지!’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인 삼성증권 POP HTS,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1회 1000만원 이상 매수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1회 1억원 이상 매수시에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에서 이벤트에 신청한 후, 금융상품 또는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1월 회사채 발행 3.3조... KT 등 거물급 수요예측 돌입

(예상액)

이달 3.3조 만기... 전달비 1.5조 ↑
KT·CJ제일제당·삼양사 등 준비



국내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철·과일·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조달 비용이 오르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여 주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일 크레딧 시장에 따르면 KT,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이 1월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현대제철, LS전선, SK인천석유화학도 회사채 발행을 위해 대표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KT(AAA·안정적)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 착수했다. KT는 이날 30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1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KT는 신용평가사로부터 AAA등급을 부여받은 초우량 기업이다. 국내 AAA급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은 공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SKT와 현대차, KT 등 3곳이 유일하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도 6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를 발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미국 식품업체인 슈완스컴퍼니(Schwan's Company) 인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오는 10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다른 기업도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회사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1월 회사채 만기 규모는 3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 12월보다 1조5000억원 가량 많다. ‘AA’ 등급 이상과 ‘A’ 등급 이하 회사채 만기가 각각 2조7000억원, 5000억원 가량이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서 상반기 중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의 예상도 비슷하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12월 회사채 수요예측 부진으로 1월 회사채 발행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연초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의 자금집행이 몰리는 시기가 차환 수요가 많은 ‘AA’ 등급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김성훈 연구원은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짐에 따라 1월에 크레딧을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크레딧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연간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축소세를 보인 점도 발행자에게 우호적이다”면서 “예년 수준(3~3조5000억원)의 발행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량기업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 390%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았었고 국내 기업의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추세의 영향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kmh@

이달 전국 2만 가구 집들이... 분양대전 막 올랐다

서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인근에 청량리역... 1425가구 조성

인천 검단신도시에 3개단지 공급 경기 ‘수원역푸르지오자이’ 분양

2018년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30만 가구에 못 미쳤다. 올해는 지난해 미뤄진 분양단지가 속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019년 1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20개 단지, 총 2만1379가구 중 1만3592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월 1만6536가구 일반분양(입

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대아파트 제외) 물량에 비해 약 3000가구 적은 규모다.

서울에서는 1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이 분양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분당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다. GTX-B와 GTX-C노선도 계획돼 있다.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4개 동 1425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1263가구다.

수도권에서 공급이 집중돼 있는 인천에서는 5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4개 단지가 검단신도시와 계양구에 있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공급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차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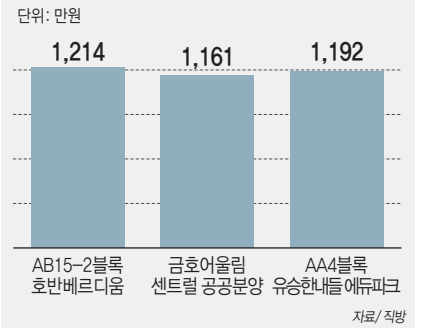
주택공급계획’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를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를 신설(1km)하는 교통대책으로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접근이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지난 4일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를 시작으로, ‘검단신도시한신더휴’, ‘검단센트럴푸르지오’ 3개 단지를 공급한다.

검단신도시는 청약 비조정 지역이자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1200만원대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이달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인천 검단신도시 평균 분양가



에 있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총 43개 동, 4086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3472가구다.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KTX가 위치한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역세권에 속해있다. 연내 수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GTX-C노선도 계획 중에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